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절 후 제1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6(통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주님의 등장하심을 기념하는 주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는 겸손한 모습으로 첫 시작을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위와 명분을 앞세우며 성급하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저희들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다스림과 군림의 길이 아니요 섬김과 겸손의 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샅된 욕심에 이끌려 싸움을 반복하는 아이들처럼 전쟁을 반복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두 평화와 안정을 꿈꾸지만 전쟁의 소문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속히 분쟁과 전쟁의 소리는 그치고 화해와 평화의 노래가 울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고전10:13 .....	인도자
♠ 교 독 문 .....	22. 시편37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윤 윤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300(통406). 내 맘이 낙심되며 .....	다함께
성경봉독 .....	I. 시63:1-4 .....	인도자
	II. 눅16:8-13 .....	문영혜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생명보다 귀한 것 .....	손성현전도사
	II.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나?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찬 송 ..... 452(통505). 내 모든 소원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겨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하나님과 욕심 사이의 적당한 타협을 지혜의 길로 착각한 지난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부질없는 저울질로 귀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여 꼭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신약성서 맥 잡기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근종 권사	기도 : 박혜경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이형숙 권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호원 김 극 정경례 고숙이 서정순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종(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공동체의 목표를 향하여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이 함께 살기로 결의하고서도 특수한 목표가 없거나 공동 생활의 ‘이유’가 불명확한 경우, 조만간 갈등이 생기고 모든 일이 붕괴되고 만다. 개인이 스스로의 기대치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동체 내부에 긴장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각자가 서로 아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란 그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 지속되려면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함께 지내려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들이 왜 모여 생활하고 각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시해 주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이는 또한 공동체가 출범하기 이전에, 그 구성원들이 공동 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들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브루노 베틀리하임은 공동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공동 생활이란 그 생활 자체 이외의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공동체가 된다는 목표 이상의 어떤 목표,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목표에 깊이 투신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할 때 존립이 가능해진다.”

공동체가 자체의 본질 탐구 면에서 진실하고 보다 창조적이면 그 구성원들 역시 각각의 관심사를 떠나 하나로 결합되려는 성향이 커진다. 반면에 공동체가 본래의 목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구성원들은 하느님과 가난한 자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문제, 그들의 부나 가난, 공동체의 구조 등만을 거론하게 될 것이다. ... 공동체는 그 구성원 전체가 어떤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때 밝게 빛나는 공동체, 완전히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가 된다.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무시된 채 사라져 버리는 울부짖음이 너무도 많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오로지 자

기 성화(聖化)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느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를 앞당겨 실현하며 목말라하는 자들의 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생활할 때,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공동체는 암흑의 세계에서 빛이 되고 교회와 온 인류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슨 권리로도 결코 미지근해질 수는 없다.

##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공동체는 구성원 대다수가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전이될 때, 그리고 각자가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최상의 공동체가 된다. 이는 곧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운동이다. 이는 곧 주님의 빠스카요, 부활의 축제이다. 이는 또한 종살이하던 땅에서 약속된 땅, 내적 자유의 땅으로 건너감이다.

사랑은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무슨 감정 같은 것도 아니다. 사랑은 점차 투신으로 화하는 타인과의 친화력이요 계약, 즉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승인하는 인증이다. ....

마음이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 그러니까 하느님과 곤궁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로 전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과 대단한 정화 작업과 새로운 부활을 창출하는 부단한 죽임이 요구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 안위를 끊임없이 포기해야 한다. 사랑의 길은 희생으로 점철된 길이다. 이기심의 뿌리는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깊숙이 뿌리 박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드러내는 자기 방어, 탐욕 및 개인의 만족, 추구 같은 반응들은 흔히 그 뿌리에서 자라는 것들이다. ....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을 파견하시어 이 새로운 에너지, 이 힘, 이 훌륭한 마음을 불러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 심지어 그가 적일지라도 - 있는 그대로 환영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게 해주마고 약속하셨다. 사랑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구석구석까지, 공포감과 장벽과 질시가 자리잡고 있는 모든 곳까지 두루 스며드셔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공동체는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 ■ 마/음/으/로/위/는/글

### 그대의 길을 떠나라

쓰디쓴 기억에서 벗어나  
까닭없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을 때  
불평과 원망이 마른풀처럼 잠들었을 때  
신발끈을 매고  
길 떠날 준비를 하라

단 한 벌의 신발과 지팡이만 지니고도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  
맑은 하늘이 내리시는 상쾌한 기운이  
그대의 몸을 감쌀 때  
그대의 길을 떠나라

- 고진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옥식 장영숙 박규석 박경선 안정숙 임원민 임수연 정한수 김지호  
 광상준 장영미 왕성환 강순배 단 비 김광민 권미숙 박정숙 안종일  
 정현주 전세종 오정숙

### 월정헌금:

박옥순 이병철 김현진 이봉배 김명순 이진솔 이진영

### 감사헌금:

김기석 문금석 이하솔 이하람 육현정 백성래 박창운 허정윤 권혁순  
 문복순 이인섭 이재문 김희진 박홍재 박병구 단 비 김희우 이나래  
 장영숙 오광자 김정애 박옥식 김주경 김준호 곽혜자 전세종 오정숙  
 전성오 김정민 양재성 김중수 왕성환 강순배 이해수 윤석철 장혜숙  
 유영남 김필순 정복순 이한림 김명희 김지원 무명

### 생일감사헌금: 안종일

### 녹색꿈 헌금: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홍지희 김정섭 정미경 정완수 김재광 한상익  
 장영숙 무명1 (누계: 8,871,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쉽	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박미영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주현절** :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 **봉헌** : 오늘 예배 중에 금년도에 봉헌할 헌금을 작성하여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재무부회의** : 오늘 오후 집회 후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4. **구역회** : 교회의 일년 살림 규모를 확정하는 구역회가 18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요.
5. **교사모집** : 2009학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동부 2명, 유아부 1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봉사하실 분은 교회학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실천** : 새해를 맞아 새롭게 후원할 곳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의 지경을 넓혀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번 주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다음 주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설거지 도우미 : 이정현 박권동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